

■ 법률 칼럼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1.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초청의 차이점

1)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I-130 이민 청원서와 함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초청은 통상적으로 I-130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접수 가능일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한동안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도 접수 가능일이 열려 있어서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약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현재는 I-130이 2023년 9월1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승인까지 소요기간의 차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의 경우 이민관 심사가 끝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2020년 2월1일 이전 경우 즉 I-130 초청장이 그날 이전에 접수된 경우만 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신청 시 신분 유지 의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합법 입국만 증명하면 신분 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I-485 접수 전까지 비이민 신분 유지를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4) 불법 노동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법 노동을 했어도 예외조항 적용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자 배우자는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배우자 초청 점검 사항

1) 재정 상태

가족이민 초청인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가족에 대해서 재정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보고서와 급여 증명서 등을 통해서 재정보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청인은 자신의 재

정 상태가 이민국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를 세금보고서 등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으셔야 합니다.

2) 시민권자 증명 서류, 유효한 영주권 준비

시민권자는 출생증명서 또는 귀화의 경우 시민권 증명서를 통해서 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미국 출생자는 미국 여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귀화자의 경우는 시민권증서 번호를 반드시 적어 넣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권 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만료가 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3. 영주권 신청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신분 유지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I-20, 성적표, 수수료, 수업료 관련 서류, 과제물 등을 취업비자로 체류하셨던 분들은 급여 관련 기록을 준비하십시오.

2)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합법적 입국 기록을 입국일자 입국 시 사용한 여권 정보를 통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 모두 범죄 기록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범죄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 인터뷰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4) 프록시 관련자 분들도 범죄 관련과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601면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 최근의 경향 중 주목할 점

최근 인터뷰 없이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케이스 접수 시에 공동서류 등을 잘 준비하시고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바로 승인을 받으시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과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8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오십견(동절견)에 대하여

동절견(Frozen shoulder)은 어깨 관절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의학용어로는 유착성관절막염(Adhesive Capsulitis)이라고 부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동절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생길 수도 있지만(특발성, idiopathic), 다른 질환이 있을 때 동반되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동절견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약 5%정도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동절견의 유병률이 20%, 그리고 특히 오래된 일형당뇨를 앓는 경우에는 평생 유병률이 76% 까지 올라갈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당뇨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 이상지질혈증,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에 있을 경우 동절견이 더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부근 위팔뼈의 골절, 어깨 수술 등의 어깨 손상 후 이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동절견의 발병은 초기에 관절낭 주위로 염증이 생긴 후 유착과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어깨 관절낭이 수축되고 두꺼워지며 관절 공간이 좁아져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절견은 임상적으로 보통 다음의 3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첫번째는,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 초기로서 광범위하고 심한 어깨 통증이 특히 밤에 심하게 나타나며 2-9개월에 걸쳐 서서히 관절이 뻣뻣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단계로, 관절 강직도가 심해지고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더욱 제한되나 통증은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로 4-12개월 정도에 걸쳐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기로 5-24개월에 걸쳐 관절 강직이 나아지고 어깨의 운동 범

위가 정상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동절견이란 질환 자체가 2-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치료 없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발병의 어느 단계에서 의사를 보게 되냐에 따라 그 의사가 들팔이가 되기도 하고 명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오십견으로 고생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낫지 않았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금방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의사의 차이보다는 동절견이라는 질환의 진행 과정 특성상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절견의 진단은 주로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로 하게 되며 엑스레이 등의 영상 검사는 진단을 위해 필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배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절견은 대부분 스스로 좋아지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회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어깨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등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과 혼동되기도 쉬워서, 진단에 맞는 치료법을 받기 위해서는 꼭 주치의나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재는 어느 치료가 더 효과적인지 밝혀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한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동절견의 치료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요법, 물리치료 그리고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보존적인 방법부터, 침습적인 수술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